

화승R&A, 자동차용 고무도 일류상품

산자부의 일류상품에 웨더스트립 선정 ... 정부의 수출확대 지원 기대

자동차부품 생산기업 화승R&A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창틀고무인 웨더스트립이 산업자원부에서 인증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.

화승R&A는 웨더스트립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받는데 이어 수출시장 확대 등 정부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.

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해당하거나 3년 이내에 세계 5위안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으로 산업자원부가 매년 2차례 선정하고 있다.

화승R&A의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용 창틀고무로 차체와 문 등에 장착돼 차체 안팎의 누수와 소음, 먼지 등을 차단하는 부품으로 차의 기밀성은 물론 차체 완충작용까지 하는 고기능성 제품이다.

화승R&A는 자체기술로 웨더스트립을 개발해 1990년 일본 Honda를 시작으로 2002년 Toyota, 2004년 미국의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에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1/25>